

● 전기협회,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열어

- 기술기준 선진화를 통한 '지능형 전기 인프라 구축' 비전 제시
- KEC 제정, 상세 규정·지침 개발 등 2차년도 사업계획(안) 의결

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가 전기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전력산업의 지능화 추진, 선진기술 및 표준 도입 등 기술기준 선진화를 통한 '지능형 전기 인프라 구축' 비전을 제시했다. 대한전기협회(회장 김중겸)는 지난달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'2011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'를 개최했다.



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회의결과와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현황, 2011년도 기술기준/판단기준 제·개정(안)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. 제·개정(안)은 ▲기술기준 13개조 14건, 판단기준 34개조 35건 등을 포함한 의견수렴 ▲전기협회 WG 운영 ▲기술

검토 ▲전문·적합성평가위원회(7회), 분과위원회(29회) 등의 심의 단계 등을 거쳐 추진됐다. 상정된 제·개정(안)은 이달안으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, 내년 1월 고시 및 공고(지식경제부)를 통해 전력산업계에 적용, 활용된다.

이어진 의결안건 심의에서는 4단계(2011~2015년) 2차년도 사업계획(안)이 심의, 의결됐으며, 중점 사업으로 △현행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선진화 △한국전기규정(KEC)제정 △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△기술기준 적용을 위한 상세 규정·지침 개발 △홍보 및 교육, 교류협력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.

한편,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는 기술기준의 채택·조정·승인을 위한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자율기구로서, 산·학·연·관에서 총 22개 위원회, 450여명의 기술기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.

● 제18차 KEPIC 운영협의회 개최

- 2012년도 사업비 분담 확정... 주요 사업계획 수립 등

대한전기협회(회장 김중겸)는 지난달 7일 한국전력공사 본관에서 KEPIC 운영협의회 참여기관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KEPIC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.

이날 회의에서는 제17차 KEPIC 운영협의회 결과와 KEPIC 개발 및 운영 현황(6단계 1차년도)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. 보고된 주요내용은 ▲KEPIC 2020 비전과 목표 ▲KEPIC 개발 6단계 사업(2011~2015년) ▲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 등이다. 이어진 의결안건 심의에서는 2012년도 KEPIC 사업비



분담(안)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 KEPIC 중·장기사업 추진계획의 중기(6단계 : 2011~2015년) 소요예산 조달 계획에 따라 참여기관별 분담금액이 확정됐다.

한편, 전기협회는 2012년 주요 사업으로 ▲KEPIC 개발 및 개선보완 ▲전력산업계 KEPIC 적용 활성화 ▲KEPIC 국제화 체제구축 및 해외적용 기반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.

◎ KEPIC 인증서 수여식

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5일과 16일 전기회관(중구 수표동 소재)에서 KEPIC(전력산업기술기준) 인증업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.

이날 수여식에는 오재형 전무이사, 안호현 KEPIC 처장 등 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, 15일 ▲STX건설 ▲코렐 ▲울트라 건설, 16일 △쌍용 건설이 인증서를 수여받았다.



◎ 전기협회, 2011년도 표준품셈 발간

전기협회에서 발간된 2012년판 전기·정보통신 표준품셈은 발주기관과 시행처 간의 이견을 더욱 해소하였으며, 현실화된 문구정리, 용어·적용기준 정비, 공량 및 해설조항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였다. 특히, 금년도에는 '현장 시공 상세도면 작성', '수목 가지치기 기계화시공' 등 6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한편 '형강(앵글형) 철탑 시공', '지중저압 접속함 점검 풀 박스(Pull Box) 설치' 등 91개 개정 항목이 반영된 2012년 개정판을 발간, 보급한다.

표준품셈은 전기부문 제1장 적용기준, 제2장 송전설비공사, 제3장 변전설비공사, 제4장 배전설비공사, 제5장 내선 설비공사, 제6장 계측 및 자동제어 설비공사, 제7장 전기철도의 전기설비공사, 제8장 항공등화 설비공사를 체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. 이와 함께 정보통신 표준품셈, 권말 부록으로 2012년 시중노임단가 적용요령 및 단가표,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,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산정기준 등을 한 권으로 엮어 발간되었다. 전기부문 표준품셈 유지관리 전담 기관인 대한전기협회는 신기술, 신공법,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의 적기 반영을 통해 표준품셈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 KEA

- 규 격 : 국판(25절) / 하드커버
- 정 가 : 40,000원
- 문 의 : 홍보팀
 - 전화 : 02-3393-7691 / 팩스 : 02-3393-7699
 - 이메일 : bss@electricity.or.kr

